

야마우치가(家)-도사번의 번주(藩主) 가문

야마우치가(家)는 에도시대(17세기 초 ~ 19세기 중반)에 도사번(고치현의 옛 이름)을 16대에 걸쳐 역임한 일족입니다. 초대 번주 야마우치 가쓰토요(1545-1605)는 오와리노쿠니(현재의 아이치현)의 유력한 무사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소년 시절에 아버지가 전쟁에 패하여 망명하게 됩니다. 그 후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섬기며 출세를 거듭,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아군으로 활약하여 전투가 끝난 후 도사 지역을 하사받아 고치성의 성주가 되어 고치를 지배하게 됩니다.

초대 번주 야마우치 가쓰토요



16대 번주 야마우치 도요노리 초상

2-4-26, Takajyo-machi, Kochi, Japan 780-0862
TEL/FAX 088-873-0406

Tosa Yamauchi Family

土佐山内家宝資料館

Treasury and Archives

한국어판

도사 야마우치가(家) 박물관

도사 야마우치가(家) 박물관은 에도시대에 도사번(고치현의 옛 이름)의 번주였던 야마우치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유물을 보존 공개하는 시설입니다. 에도시대(17세기 초 ~ 19세기 중반)에 고치성 내에 있던 야마우치 가문의 유물을 메이지 이후, 도쿄와 고치에 있는 야마우치 집안의 저택에서 관리되어 왔습니다. 정권교체에 의한 혼란과 지진 등의 재해, 1945년 공습에 의하 일부 유물이 손실되었지만, 현재에도 67,000점에 달하는 유물이 남아 있습니다. 박물관 2004년까지 차례로 고치현에 기증되어, 현재 모든 유물은 고치현민의 재산이 되게 있습니다.

<주요 소장 전시자료>

고문서 약 30,000점 (16세기 후반 ~ 20세기 전반)
미술공예품 약 5,000점
(서적, 회화, 무기, 병구, 세간, 能(노-고전예능의 하나)도구, 다도 도구 등)
화서한적(和書漢籍)(도서류) 약 2,000점
근대도서류 약 2,000점
시각자료 약 10,000점

다이묘

에도시대의 영주(번주)들은 많은 무사 중에서도 쇼군(장군) 다음인 '다이묘'라고 불리우는 직위를 받아 많은 가산을 거느릴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었다. 그들은 에도(현재의 도쿄)에서 쇼군 가문을 섬김과 동시에, 쇼군으로부터 받은 영지에서는 영주로서 정치를 행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에도와 영지를 왕복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에도에서는 쇼군을 정기적으로 알현하고 대외적인 교섭을 행하였으며, 영지에서는 영민들로부터 세를 걷고 농업과 임업 등의 산업 육성, 가신 관리 등의 내정에도 임하였습니다. 야마우치 가문에 전해지는 자료는 행정 가정(家政) 관계의 문서, 교양을 쌓기 위한 시적, 상류생활을 향유하기 위한 가구와 의상 등입니다. 이들 자료는 다이묘라는 존재의 의미와 생활 모습을 지금의 우리들에게 알려 줍니다.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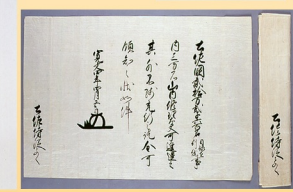
3



4



7



5

6



사진설명 :

- 1 | 容堂公箱根旅行繪卷 | (하코네를 여행하는 15대 번주 容堂의 그림) 19세기
- 2 | 青磁蓮弁文茶碗 | (영민으로부터 헌상받은 중국제의 연꽃 문양의 밥공기) 14-16세기
- 3 | 古瀬戸耳付茶入 | (쇼군에게 받은 달차용기) 15세기경
- 4 | 能面小面 (젊은 여성) 17-18세기
- 5 | 太刀 銘廣利 (친왕에게 하사받은 검) 17세기
- 6 | 領知判物 (쇼군에게 받은 영지 증명서) 17세기
- 7 | 雜道具 (쇼군의 딸이 야마우치가에 시집 올 당시의 혼수도구를 축소, 모형화한 것)
- 8 | 藤立神社祭禮寫眞 (즉세 때의 무사행렬을 찍은 사진) 20세기 초